

통합정당 가시화...총선지형 지각변동

경선 틀·구도 변화...국민참여 확대 민주기득권 축소 물갈이 폭 커질 듯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통합정당 출범이 구체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통합정당 출범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총선 구도는 기존의 민주당 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질서가 생김되면서 치열한 '공천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통합정당의 출범으로 당원에 제한하지 않고 시민 참여에 방점을 둔 새로운 '경선 틀'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정당의 경선 틀

로 '완전 국민경선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원에 제한하지 않고 지역구 별로 선거인단을 구성, 경선을 치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바일, 인터넷 경선 등도 시민 참여를 위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각 경선 후보 측의 대규모 '동원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통합정당이 출범하면서 당원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당원의 참여가 일부 보장되는

'국민 참여 경선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연대 지역 등 일부 지역구에서는 시민 배심원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경선 구도도 급변할 전망이다. 통합정당이 출범한다면 그동안 민주당 밖에서 광범했던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대거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민주당 기득권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선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통합정당에 시민사회세력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경선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도덕성 기준이 강화되고 참신성과 전문성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존의 당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이 낮아지면서 정치 신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통합정당의 개혁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도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어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 정당들의 통합으로 출범한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도 광주·전남지역 총선 구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야권대통합이 안 된다면 차기 대선에서의 공조 등을 감안, 내년 총선에서 선거 연대를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광주 2곳, 전남 2곳의 지역구에서 선거 연대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정당 출범이 진통을 겪으면서 민주당의 분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열로 인한 뼈아픈 기억이 생생하다는 점에서 민심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학가는 열공중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학기말 시험이 시작됐다. 6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도서관에서 '취업 전쟁'을 앞둔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공범단체 설립 첫 단추

5월 관련단체 중재안 수용...정관 제정 등 시민단체 위임 합의

5·18 공범단체 설립 문제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5월 관련단체가 통합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공범단체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5·18 민주유공자 공범단체 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출범한 지 2년 만이다. 6일 김재균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을 포함한 정수만 5·18 유족회장, 신경진 5·18 부상자회장, 안희승 5·18 구속부상자회장, 김삼집 공추위

회장 등은 지난 4일부터 3일간 '5·18 공범단체 설립을 위한 연쇄 간담회'를 열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발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5·18 공범단체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의 제정을 광주 시민사회단체에 위임하자는데 합의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든 정관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정된 안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족회·부상자회는 '선(先) 통합 후(後) 발의'를 주장하면서 3개 단체간 동일한 수의 대의원을 선출해 대의원체로 정관 및 운영 규정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구속부상자회는 '선 발의 후 통합'을 주장하면서 대의원 수를 단체 회원 수에 따라 조정하거나 총회체로 만들자고 맞섰다. 광주지역

의원 8명 중 3명은 입법 발의 서명을 하지 않거나 통합을 전제로 조건부 서명을 한 상태였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정관과 운영규정 등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중재안대로 따를 지 여부는 미지수다. 신경진 부상자회장은 "위임한 것은 사실인데, 조건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고, 안희승 구속부상자회장은 "우선 따르겠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공범단체 =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주체로 하는 법(公法)에 의해 규정되는 단체. 운영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공범단체로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이 있다.

광신대학교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www.kwangshin.co.kr
인학 학 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 학교 사업' 광주일보사 주관기관 선정

광주일보사가 지역언론사로는 최초로 전문성을 갖춘 명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내년 신학기부터 광주·전남북지역 초·중·고교생들을 만난다. 광주일보사는 6일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 모집한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 운영'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일보사는 이번 공모에 ▲신문활용교육 ▲사진활용교육 ▲자기주도학습 등 신문사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안, 방과후 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2012년 3월부터 1년동안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소환조사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희태 국회의장의 행사전 비서(전문계약직 라급)인 김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6일 소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김모씨의 범행 당시 정황 및 동기, 배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범행 시간대인 10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강남의 B물살룸에서 공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5명을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면서 "현재까지는 이 자리가 범행과 연관돼 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술자리는 박 의장의 비서인 김씨가 주선해 공성진 전 의원의 비서였던 박모씨, 검찰 수사관 출신 사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하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하트 정회원 (분양예정 / 신항점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금액 : 2억원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지정회원 1인 그린피면제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50회)
휴먼 정회원	해피 정회원 (조기 마감 후 1억2천만원 분양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무기명카드 2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70회 사용, 1일 1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금액 : 1억원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선택 : C형, D형 중 선택(1) C형) 무기명카드 1매 :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D형) 지정회원 1인 중회원대우(연,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주중 / 평일 정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회금액 :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 	

※ VIP회원 및 해피·휴먼·하트 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좌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www.happinesscc.com